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3년 7월 생산은 전월대비 0.7% 감소(전년동월대비 1.4% 감소)

-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광공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7% 감소함.
 - －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광공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어 1.4% 감소함.
- 제조업 생산은 의복·모피, 전기장비 등에서 늘었으나, 전자부품, 기계장비 등에서 줄어 전월 대비 2.0% 감소함(전년동월대비 8.1%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등에서 줄었으나,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함(전년동월대비 1.9% 증가).

◆ 2023년 7월 소비는 전월대비 3.2% 감소,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8.9%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5.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1%), 의복 등 준내구재(-3.6%)에서 모두 줄어 전월대비 3.2% 감소함(전년동월대비 1.7% 감소).
-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22.4%) 및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6%)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8.9% 감소함(전년동월대비 11.0%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0.8% 증가,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39.8% 감소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연간				분기				분기				월		
		2020	2021	2022	2021				2022				2022	2023		
					1/4	2/4	3/4	4/4	1/4	2/4	3/4	4/4		7월	6월p	7월p
생산	전산업	-1.2	5.3	4.6	1.8	1.0	0.6	2.6	1.6	0.8	0.4	-1.5	0.4	0.0(0.7)	-0.7(-1.4)	
	광공업	-0.3	8.2	1.4	3.3	-1.3	1.7	2.9	3.2	-2.3	-2.4	-6.4	-1.5	-1.5(-5.9)	-2.0(-8.0)	
	제조업	-0.2	8.4	1.4	3.4	-1.5	1.6	3.1	3.2	-2.2	-2.6	-6.7	-1.7	-1.6(-6.2)	-2.0(-8.1)	
	건설업	-2.1	-6.7	2.7	-2.9	-3.3	-0.6	2.4	0.5	-0.1	0.8	4.6	-1.4	-2.0(9.1)	0.8(10.8)	
	서비스업	-2.0	5.0	6.7	1.2	2.2	0.3	2.6	0.8	2.9	1.7	0.1	1.0	0.5(3.0)	0.4(1.9)	
소비	소비재 판매	-0.1	5.8	-0.3	2.9	1.5	1.1	0.5	-0.7	-1.0	0.3	-0.9	-0.1	0.9(1.5)	-3.2(-1.7)	
투자	설비투자	5.9	9.6	3.3	6.3	1.4	-1.7	-0.4	0.4	-0.4	8.6	-0.2	-1.8	-1.1(-2.4)	-8.9(-11.0)	
물가		0.5	2.5	5.1	1.3	0.5	0.7	1.0	1.5	2.1	1.1	0.4	-0.1	0.1(2.3)	1.0(3.4)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22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2년 8월, 2023년 7월, 2023년 8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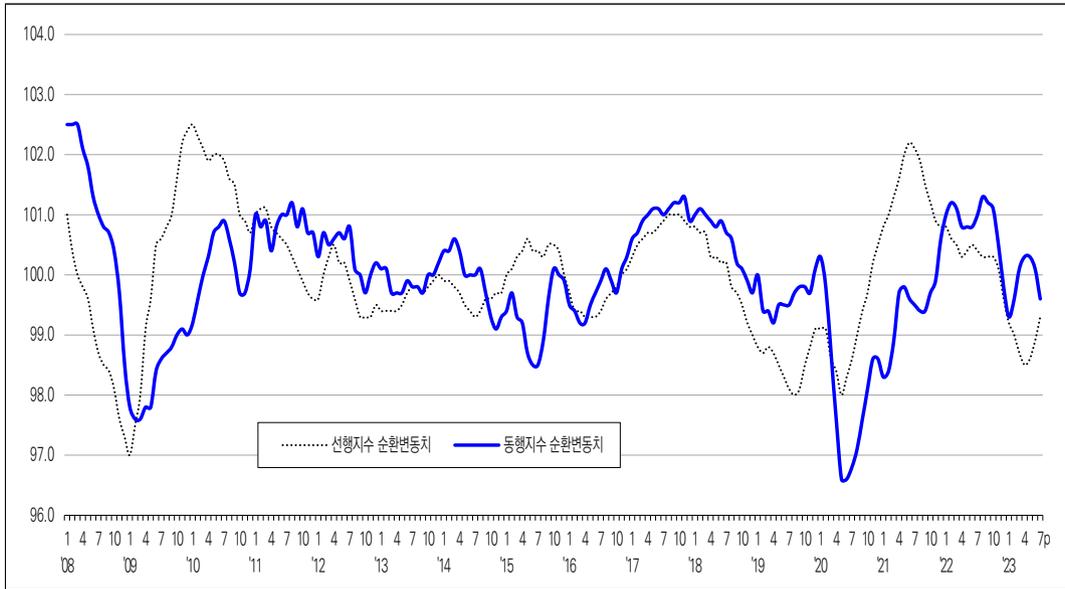
◆ 2023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0%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1.5% 상승)

- 2023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2.33(2020=100)으로 전월대비 1.0% 상승함(전년동월대비 3.4%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2.9%), 교통(3.8%), 음식·숙박(0.3%), 기타 상품·서비스(0.5%), 가정용품·가사서비스(0.4%), 오락·문화(0.4%), 주택·수도·전기·연료(0.1%), 보건(0.1%), 의류·신발(0.1%)은 상승, 교육, 주류·담배, 통신은 변동 없음.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1.7% 상승, 식품이외는 전월대비 1.3% 상승하여 전월대비 1.5% 상승함.

◆ 2023년 7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3% 감소,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5% 증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5p 하락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4p 상승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 1) p는 잠정치임.
 2)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20년=1000이 기준.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쁨,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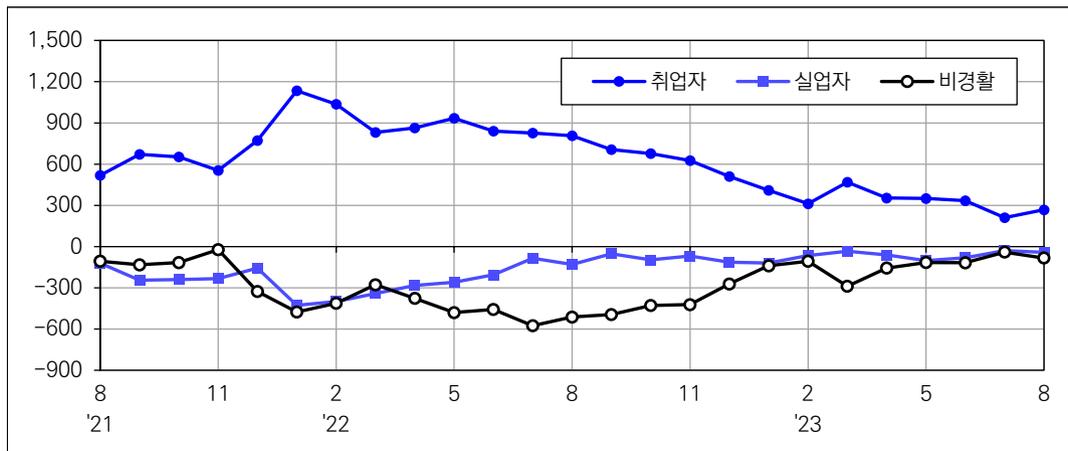
고용 동향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전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

○ 2023년 8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 8천 명 증가하여 둔화세가 일시적으로 멈추고 취업자 증가폭이 늘어남(전월대비¹⁾ 7만 7천 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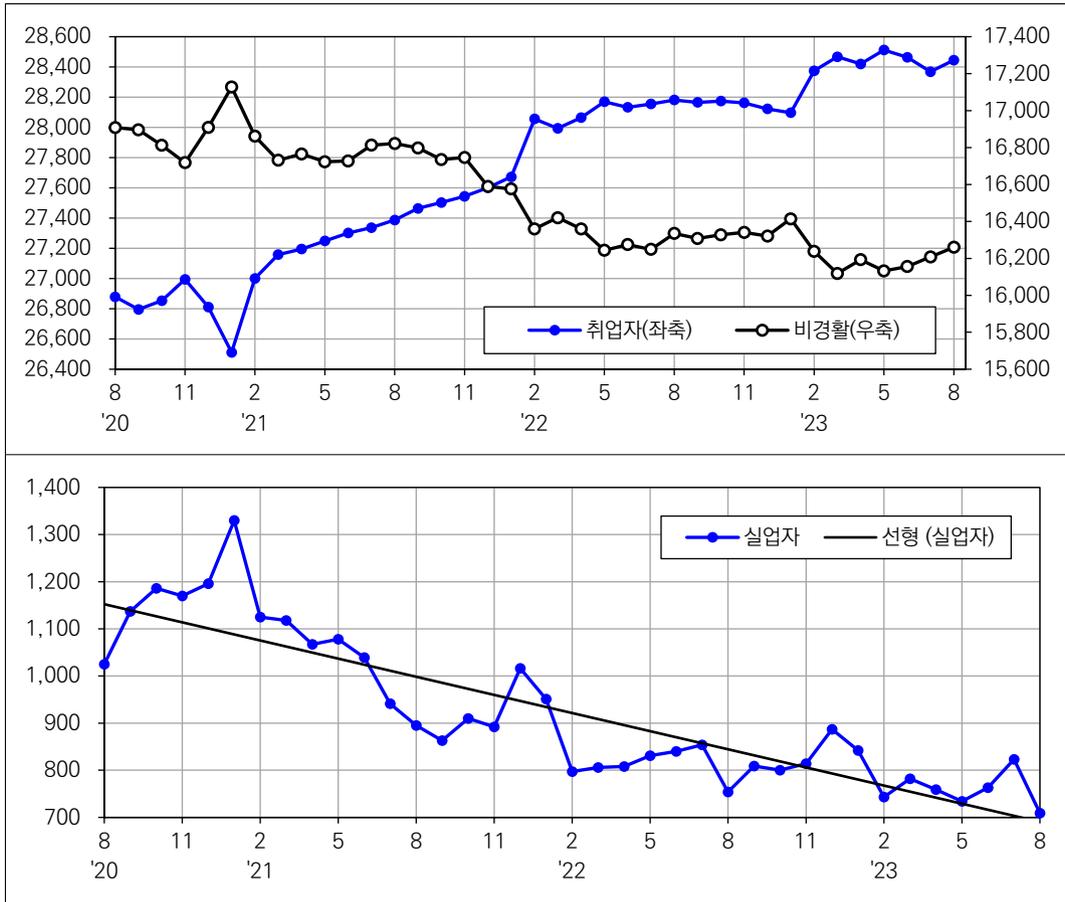
-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8월 제조업은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됨. 건설업은 취업자 수 감소폭이 축소됨. 서비스업 취업자는 도소매에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정보통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다소 축소됨. 돌봄관련 고용 증가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세는 유지됨.
- (연령별) 전년동월대비 8월은 30대 취업자 증가가 지속됨. 50·60대 중고령층에서는 일정 수준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유지됨. 20대 청년 취업자 감소폭이 다소 축소됨.
- (종사상 지위별) 전년동월대비 8월은 상용직 증가폭이 줄어들었고, 일용직 감소폭은 다소 축소됨.
- (실업자) 전년동월대비 8월 실업자는 4만 1천 명 감소, 전월대비로는 1만 2천 명 감소함.
- (비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8월 비경제활동인구는 8만 3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늘어남(7월 -4만 명). 전월대비로는 4만 3천 명 감소함.

[그림 1] 원계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증감 현황(상) 및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중), 실업자(하) 변화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1]의 계속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8월은 50·60대 취업자 증가폭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30대 취업자 증가 역시 지속됨. 20대 청년층 취업자 감소폭 축소가 청년층 고용지표 반등의 시작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20대 청년층 인구가 19만 2천 명 감소 중이기 때문에 취업자 역시 9만 1천 명 감소함. 고용률은 20대 초반 0.8%p 감소했으나 20대 후반 연령대에서는 1.2%p 증가함. 20대 초반 고용 감소는 각 부문별로 상용직(-5만 3천 명), 도소매(-3만 5천 명), 판매종사자(-3만 7천 명) 위주임.
- 30대 인구가 6만 4천 명 감소하는 와중에도 취업자는 6만 4천 명 증가함. 이는 30대 여성 취업자 증가(7만 9천 명)가 두드러지기 때문임. 특히 30대 초반 여성 고용 증가폭(7만 9천 명)이 큰데, 숙박업 및 음식점업(2만 4천 명), 제조업(2만 2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 스업(1만 4천 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특징적임.
-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실업자는 감소 중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 중임.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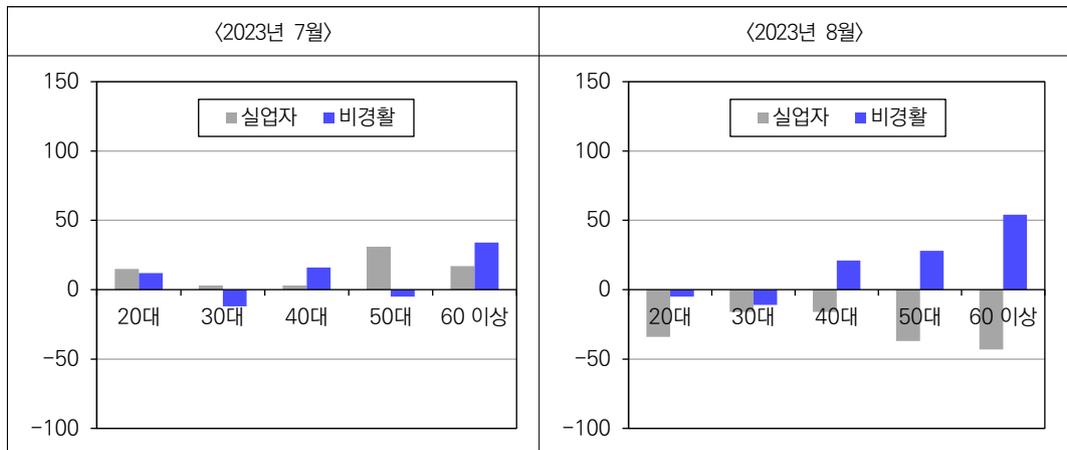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6월	7월	8월	(전월비)	6월	7월	8월	(전월비)	6월	7월	8월	(전월비)
취업자	-14	-10	-13	(3)	-103	-128	-91	(21)	70	51	64	(27)
실업자	3	-11	0	(3)	-37	-33	-44	(-34)	-17	-20	-13	(-16)
비경활	34	43	33	(-7)	-55	-31	-58	(-5)	-128	-100	-115	(-11)
실업률	2.1	-4.5	0.2	(1.5)	-0.7	-0.5	-0.9	(-0.8)	-0.4	-0.3	-0.3	(-0.3)
고용률	-0.7	-0.5	-0.6	(0.1)	0.3	-0.1	0.4	(0.6)	1.9	1.6	1.7	(0.4)
	40대				50대				60세 이상			
	6월	7월	8월	(전월비)	6월	7월	8월	(전월비)	6월	7월	8월	(전월비)
취업자	-34	-61	-69	(-18)	71	61	73	(17)	343	298	304	(29)
실업자	-16	-8	-6	(-16)	-23	18	-1	(-37)	9	25	23	(-43)
비경활	-70	-54	-52	(21)	-57	-80	-65	(28)	157	183	174	(54)
실업률	-0.2	-0.1	-0.1	(-0.3)	-0.3	0.3	-0.1	(-0.6)	0.0	0.3	0.3	(-0.7)
고용률	0.8	0.5	0.4	(-0.1)	0.9	0.8	0.8	(0.1)	0.8	0.4	0.5	(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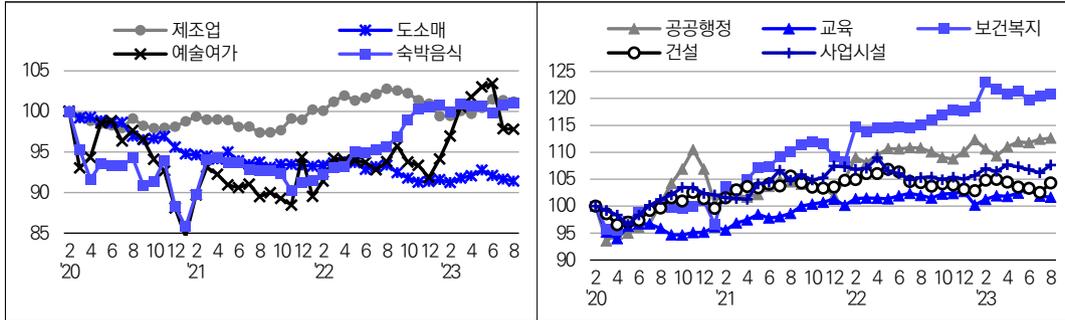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도소매, 전문과학, 정보통신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함. 건설업, 협회 및 단체, 사업관리지원업 서비스업, 농림어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함.

- 대체로 도소매를 제외한 서비스업 전반에서 코로나19 유행기 이전인 2022년 2월 취업자 수준을 회복함.

[그림 3]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14	-42	-19	-7	-21	24	-3	-0.2
광업	0	0	2	1	-1	0	-1	-11.1
제조업	-10	-35	-69	47	-5	-8	33	0.7
전기·가스·증기	8	4	10	2	2	6	9	10.8
수도·원료재생	-5	1	3	-12	6	2	-3	-2.0
건설업	-62	-43	-1	-5	-16	36	15	0.7
도매 및 소매업	-27	-55	-69	-24	-16	-8	-48	-1.5
운수 및 창고업	-39	-26	-16	-2	1	-1	-2	-0.1
숙박 및 음식점업	116	125	121	-18	21	6	9	0.4
정보통신업	53	48	45	-2	-4	-7	-13	-1.2
금융 및 보험업	18	-7	-4	-3	1	1	-1	-0.1
부동산업	-32	-11	-16	1	-3	-3	-5	-0.9
전문·과학·기술	98	62	57	-15	-7	-14	-35	-2.5
사업시설관리지원	10	17	31	-7	-8	19	4	0.3
공공행정·사회보장	14	18	20	-2	7	2	7	0.6
교육서비스업	29	-8	-6	18	-29	-4	-14	-0.7
보건 및 사회복지	126	145	138	-37	15	7	-14	-0.5
예술·스포츠·여가	50	26	21	2	-29	0	-27	-5.1
협회·단체·수리·기타	1	4	32	3	4	20	26	2.3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4	-13	-10	-4	-4	-2	-9	-11.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2023년 8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고 임시직 감소폭이 줄어들. 자영업자는 완만히 증가 중임.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상용직	546	513	393	-29	36	-90
임시직	-133	-144	-14	-29	-3	117
일용직	-115	-188	-149	-5	-92	5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15	48	59	-8	1	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	81	44	34	39	-13	10
무급가족종사자	-60	-62	-55	-13	-17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농림어업	0	1	6	-24	-22	-8	-6	-13	-9	-13	-10	-6	43	28	-25
제조업	38	-32	-71	-19	1	-6	-25	-27	-23	5	17	25	-1	4	-2
건설업	11	38	52	-24	-28	-15	-68	-91	-73	2	10	1	21	29	3
도소매	52	51	30	-17	-49	-40	-8	-10	-9	-31	-9	8	-9	-25	-12
운수창고	-5	7	2	-33	-20	2	-11	-13	-18	5	7	-20	5	-5	-3
숙박음식	81	76	51	35	48	63	-12	-9	-14	19	18	9	2	2	-5
정보통신	40	25	19	5	16	11	-3	-3	2	7	7	26	4	5	0
금융보험	10	-6	1	-3	-8	-11	-1	-2	-3	1	0	3	8	8	0
부동산	-6	4	1	-15	-11	-9	1	0	1	1	2	2	-12	-7	-1
전문과학기술	74	49	40	9	4	8	4	-2	-1	15	18	2	-5	-8	2
사업관리지원	-19	9	11	5	-12	0	19	16	17	4	1	17	7	10	-4
공공행정	15	19	12	-2	2	10	1	-4	-2	-	-	-	-	-	-
교육서비스	38	27	27	-11	-39	-30	4	4	-4	-6	-5	3	8	12	-4
보건복지	163	179	130	-37	-20	15	-3	-5	3	-2	-11	-2	4	2	0
예술스포츠	20	21	15	23	17	1	1	-3	11	8	2	-16	-2	-7	1
협회단체	17	26	40	-12	-1	15	-8	-17	-20	1	2	9	3	-7	-4
가구 내 고용	-1	-1	1	-6	-8	-10	-1	-6	-5	-	-	-	4	3	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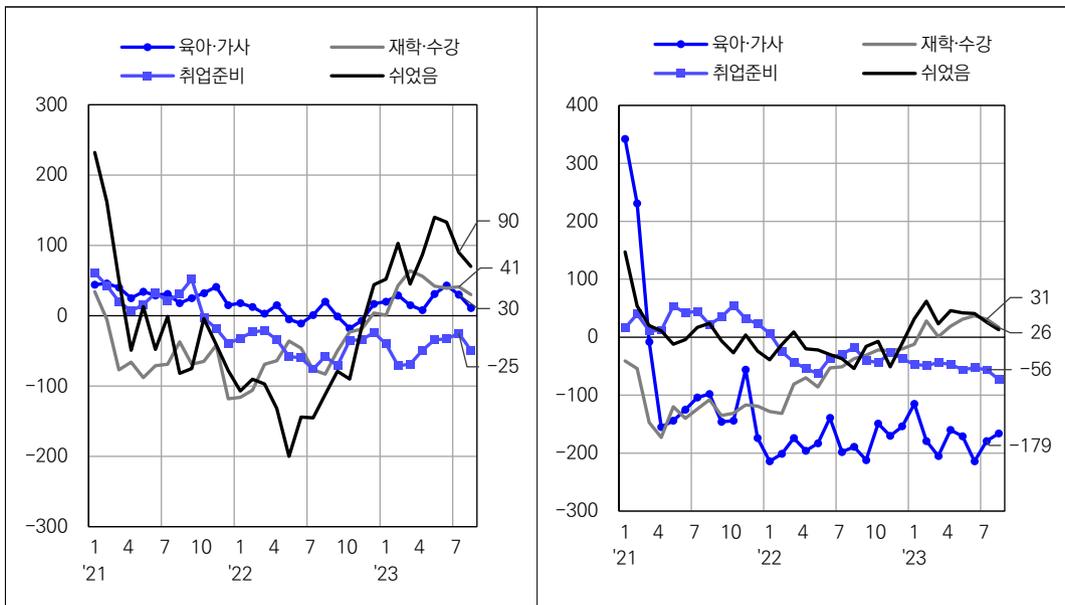
- 상용직은 제조업 감소폭이 커졌고 숙박 및 음식점업 증가폭이 줄어들었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도 상용직 증가폭이 줄어들음.
- 건설업에서 상용직 증가폭이 늘어나고, 임시·일용직 감소폭은 줄어들음.
-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임시직 종사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8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8만 3천 명으로 감소폭이 늘어남(7월 -4만 명).

-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12만 5천 명으로 쉬었음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여성은 -20만 7천 명으로 육아·가사(-16만 6천 명) 사유의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줄어들음.

[그림 4] 성별(남자: 좌, 여자: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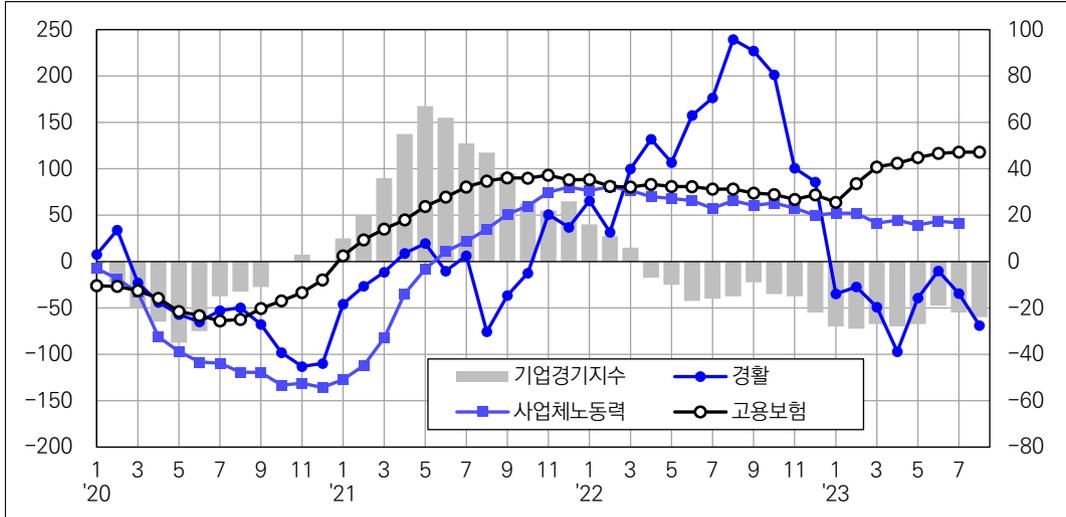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 확대

○ 2023년 8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만 9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됨.

-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반영된 영향임. 기업 경기지수는 감소폭이 확대됨.
-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8천 명 감소함.

[그림 5]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6]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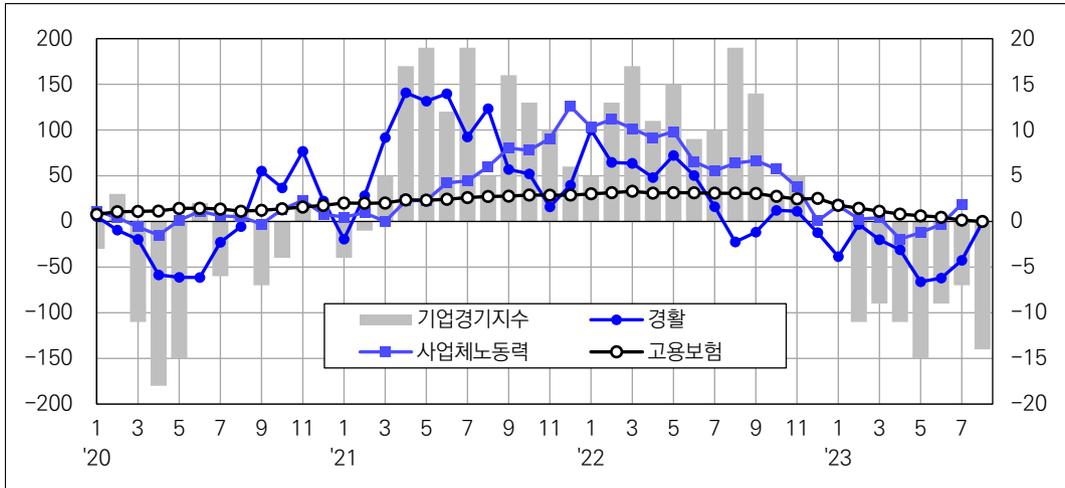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8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대폭 축소됨.

-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는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자는 여전히 둔화세임.

[그림 7]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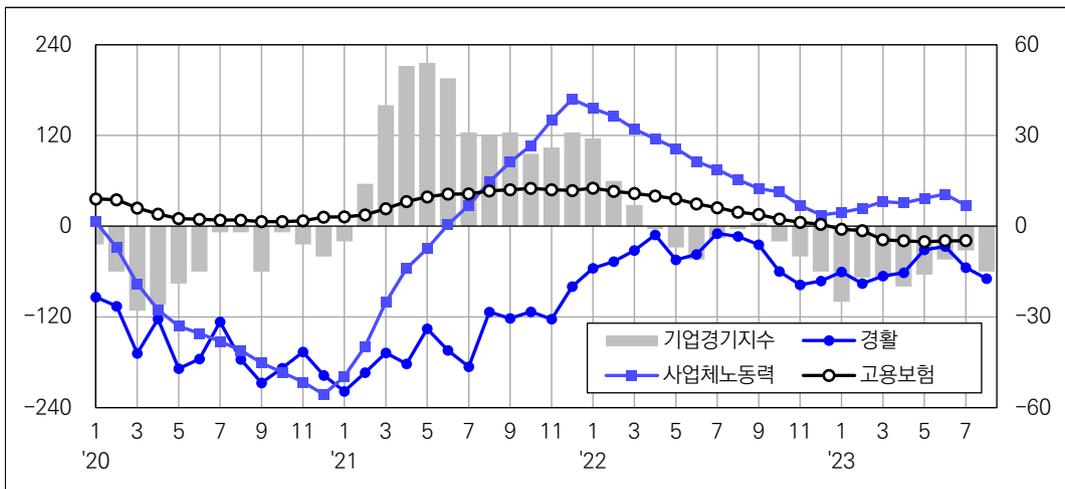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3년 8월 서비스업은 추세적 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세부산업별 고용 증감 양상이 오랜 기간 유지되는 중임.

- (도소매)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됨.
- (숙박 및 음식점업) 2022년 4분기 이후 1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이어짐.

[그림 8]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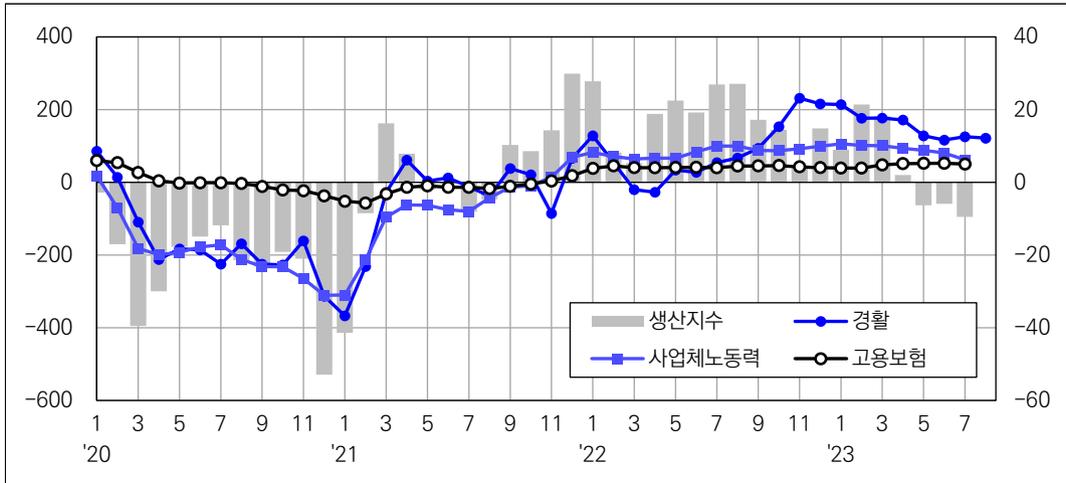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정보통신업) 비대면 특수 업종이 상당수 포함된 특성으로 이 산업 취업자 증가는 2021년 이후 지속되었으며, 점차 고용 증가폭이 둔화되는 추세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0대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고용 증가폭은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돌봄관련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일정 수준의 취업자 증가가 유지되는 중임.

[그림 9]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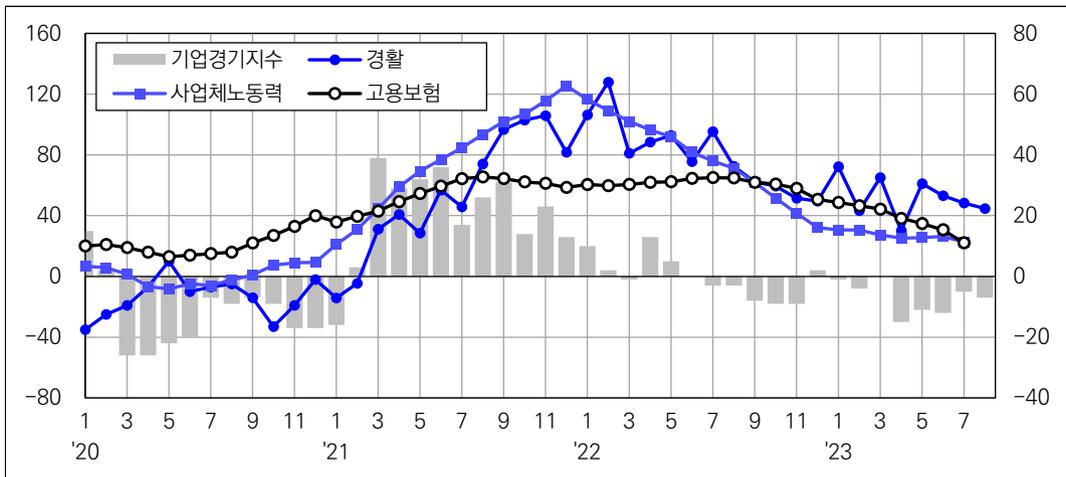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0] 정보통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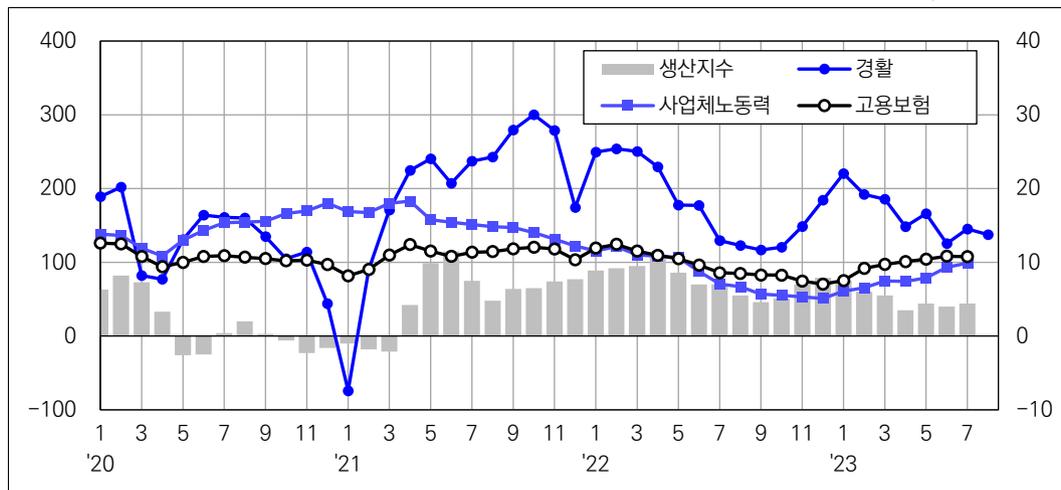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김종욱,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3년 6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2.0% 증가

- 2023년 6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73만 7천 원(2.0%)임.
 - 2023년 6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96만 3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5% 증가, 임시일용 근로자 임금총액은 174만 7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 둔화는 정액급여증가폭 둔화와 특별급여 감소 영향이 큼.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3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함.
 - 2023년 1~6월 평균 실질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1.5% 감소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2020=100.0)

	2019	2020	2021	2022	2022		2023	
					1~6월	6월	1~6월	6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490 (3.4)	3,527 (1.1)	3,689 (4.6)	3,869 (4.9)	3,846 (5.8)	3,663 (4.9)	3,938 (2.4)	3,737 (2.0)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702 (3.1)	3,719 (0.4)	3,893 (4.7)	4,095 (5.2)	4,065 (6.1)	3,865 (5.0)	3,963 (2.8)
	정액급여	3,010 (4.1)	3,077 (2.2)	3,181 (3.4)	3,319 (4.3)	3,286 (4.1)	3,305 (4.4)	3,419 (4.0)
	초과급여	202 (2.7)	200 (-0.9)	208 (3.7)	220 (5.7)	217 (5.8)	228 (9.6)	221 (2.2)
	특별급여	490 (-2.8)	441 (-9.9)	504 (14.3)	556 (10.4)	562 (19.1)	332 (8.5)	540 (-4.0)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517 (6.2)	1,636 (7.8)	1,700 (3.9)	1,747 (2.8)	1,735 (2.9)	1,751 (2.3)	1,735 (0.0)	1,747 (-0.2)
소비자물가지수	105.1 (0.4)	105.7 (0.5)	104.0 (2.5)	109.3 (5.1)	106.4 (4.6)	108.2 (6.0)	110.7 (4.0)	111.1 (2.7)
실질임금증가율	3.0	0.5	2.0	-0.2	1.1	-1.1	-1.5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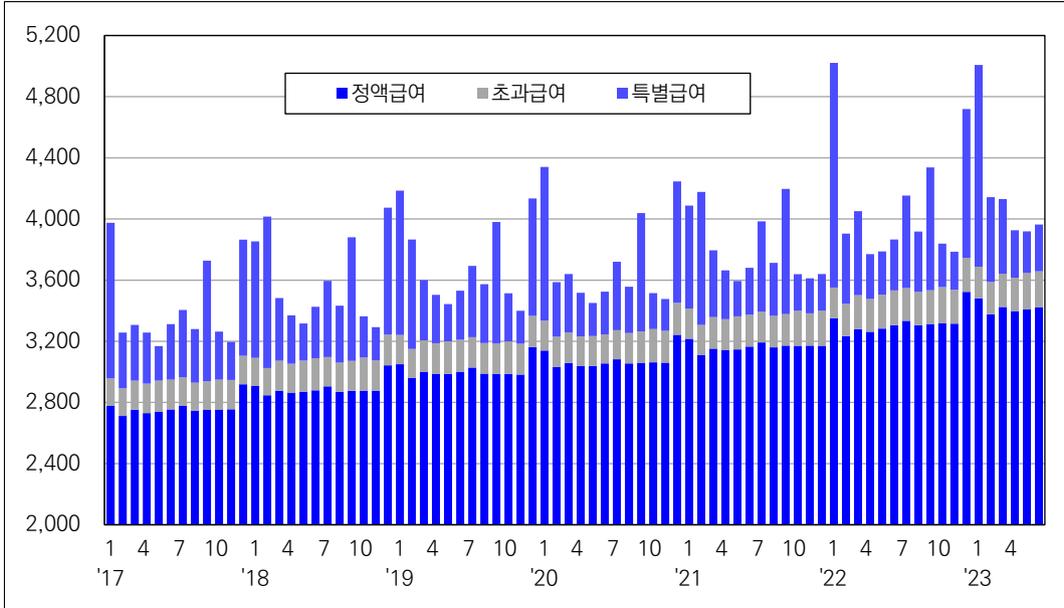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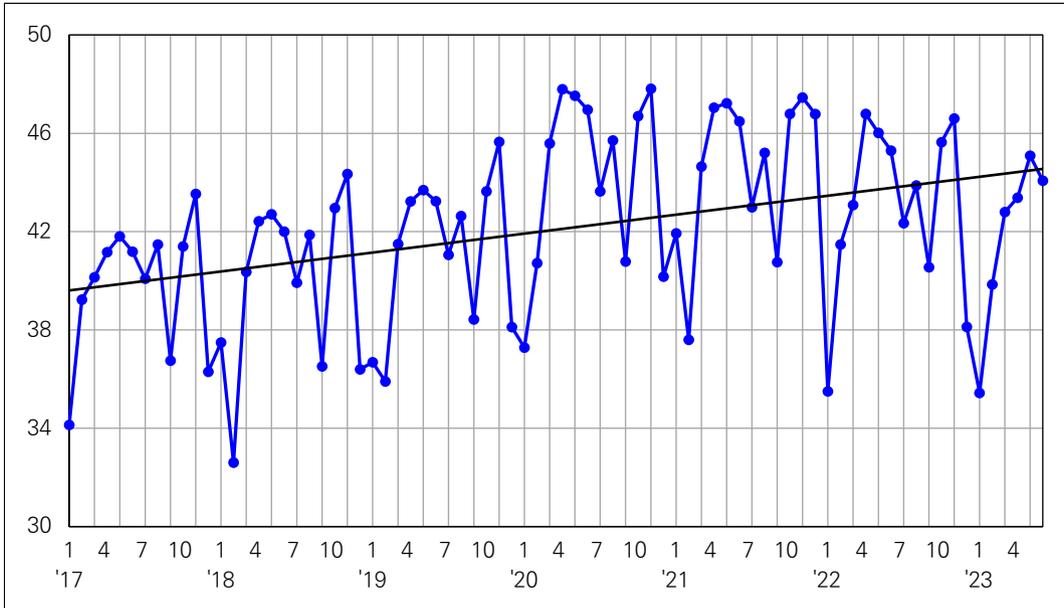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 상용근로자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6월 중소기업의 임금상승폭 크게 둔화

- 2023년 6월 중소기업(상용근로자 1~299인) 사업체의 임금은 341만 7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4% 증가, 대규모(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은 530만 8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3% 증가함.²⁾
 -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데는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증가폭 둔화(-1.0%p)와 특별급여 감소(-27.7%p) 영향이 큼.
 - 중소기업 사업체에서 정액급여가 감소한 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특히 광업(-5.9%), 숙박 및 음식점업(-3.6%), 제조업(-1.9%), 보건업 및 복지서비스업(-1.6%) 등이 전년동월대비 정액급여가 크게 감소한 산업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사업체의 대부분 산업에서 특별급여 감소폭이 컸으며, 특히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9.4%), 건설업(-50.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46.2%), 도매 및 소매업(-38.7%) 등을 중심으로 특별급여가 크게 감소하였고, 제조업도 전년동월대비 19.3% 감소함.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2021	2022	2022		2023	
				1~6월	6월	1~6월	6월
중소 규모	소 계	3,316(3.8)	3,462(4.4)	3,417(4.6)	3,371(5.0)	3,490(2.1)	3,417(1.4)
	상용임금총액	3,510(3.9)	3,675(4.7)	3,620(4.8)	3,570(5.2)	3,716(2.6)	3,638(1.9)
	정액급여	3,012(3.4)	3,139(4.2)	3,110(4.1)	3,138(4.4)	3,230(3.8)	3,243(3.4)
	초과급여	176(2.9)	186(5.7)	184(5.9)	192(10.1)	183(-0.6)	193(0.3)
	특별급여	322(10.4)	350(8.7)	327(12.1)	240(12.1)	304(-7.1)	202(-15.6)
	임시일용임금총액	1,671(3.4)	1,711(2.4)	1,703(2.4)	1,730(2.0)	1,702(0.0)	1,722(-0.5)
대규모	소 계	5,582(6.5)	5,922(6.1)	6,012(9.2)	5,138(4.3)	6,134(2.0)	5,308(3.3)
	상용임금총액	5,687(6.6)	6,049(6.4)	6,139(9.5)	5,243(4.5)	6,276(2.2)	5,430(3.6)
	정액급여	3,973(3.3)	4,155(4.6)	4,107(4.3)	4,087(4.3)	4,273(4.0)	4,238(3.7)
	초과급여	357(5.1)	377(5.5)	371(5.5)	393(8.4)	397(6.9)	426(8.4)
	특별급여	1,357(18.1)	1,516(11.8)	1,661(26.2)	763(3.5)	1,607(-3.3)	767(0.4)
	임시일용임금총액	2,214(9.1)	2,321(4.8)	2,257(6.0)	2,090(5.6)	2,256(-0.1)	2,134(2.1)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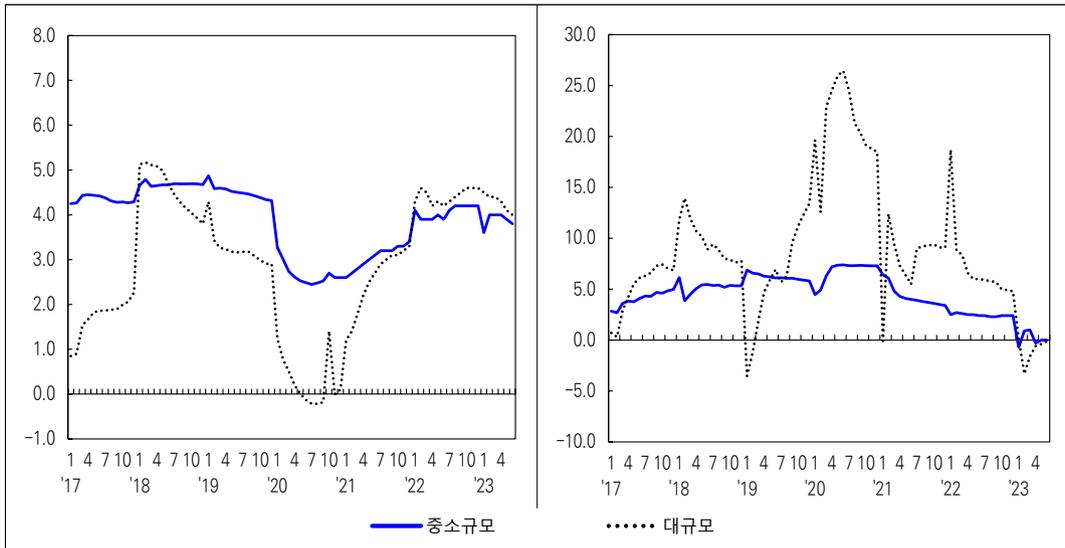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를 구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사업체는 상용근로자가 1~299인, 대규모 사업체는 상용근로자 수 300인 이상 규모를 의미함.

- 중소기업의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감소(-0.5%)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는 2.1% 증가함.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주: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6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23년 6월 임금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6.8%)이고, 다음으로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4.8%), 협회, 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4.4%)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6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845만 6천 원)이고,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630만 9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16만 3천 원) 인 가운데,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04만 2천 원)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21	2022	2022		2023	
			1~6월	6월	1~6월	6월
전 산업	3,689 (4.6)	3,869 (4.9)	3,846 (5.8)	3,663 (4.9)	3,938 (2.4)	3,737 (2.0)
광업	4,415 (2.1)	4,608 (4.4)	4,498 (4.9)	4,335 (5.2)	4,514 (0.3)	4,225 (-2.5)
제조업	4,239 (6.2)	4,484 (5.8)	4,489 (8.0)	4,083 (5.3)	4,628 (3.1)	4,203 (2.9)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753 (0.3)	6,907 (2.3)	6,670 (2.1)	8,549 (1.7)	7,343(10.1)	8,456(-1.1)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4,094 (5.3)	4,168 (1.8)	4,041 (2.2)	4,152 (4.4)	4,181 (3.5)	4,353 (4.8)
건설업	3,106 (2.4)	3,229 (4.0)	3,201 (4.2)	3,227 (4.8)	3,330 (4.0)	3,317 (2.8)
도매 및 소매업	3,551 (3.7)	3,773 (6.3)	3,701 (5.7)	3,610 (6.6)	3,870 (4.6)	3,721 (3.1)
운수 및 창고업	3,795 (7.5)	4,040 (6.5)	3,828 (5.8)	3,781 (3.6)	4,077 (6.5)	4,039 (6.8)
숙박 및 음식점업	1,905 (1.4)	2,004 (5.2)	1,975 (5.1)	1,998 (7.6)	2,070 (4.8)	2,042 (2.2)
정보통신업	4,796 (4.0)	4,999 (4.2)	5,075 (4.1)	4,733 (4.5)	5,150 (1.5)	4,836 (2.2)
금융 및 보험업	6,963 (6.7)	7,324 (5.2)	7,602 (6.9)	6,131 (3.3)	7,474(-1.7)	6,309 (2.9)
부동산업	2,954 (3.7)	3,086 (4.5)	3,101 (5.5)	2,989 (3.4)	3,109 (0.3)	3,045 (1.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106 (4.8)	5,376 (5.3)	5,261 (7.0)	5,194 (6.4)	5,337 (1.4)	5,163 (-0.6)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492 (3.4)	2,584 (3.7)	2,562 (4.0)	2,553 (4.7)	2,648 (3.3)	2,628 (2.9)
교육서비스업	3,355(-0.3)	3,435 (2.4)	3,439 (1.8)	3,222 (1.9)	3,514 (2.2)	3,274 (1.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14 (2.5)	3,122 (3.6)	3,091 (3.9)	3,054 (3.5)	3,095 (0.1)	3,062 (0.2)
여가 관련 서비스업	2,994 (4.2)	3,077 (2.8)	3,017 (2.9)	2,924 (3.5)	3,040 (0.7)	2,940 (0.5)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700 (5.4)	2,832 (4.9)	2,788 (4.7)	2,713 (3.3)	2,958 (6.1)	2,833 (4.4)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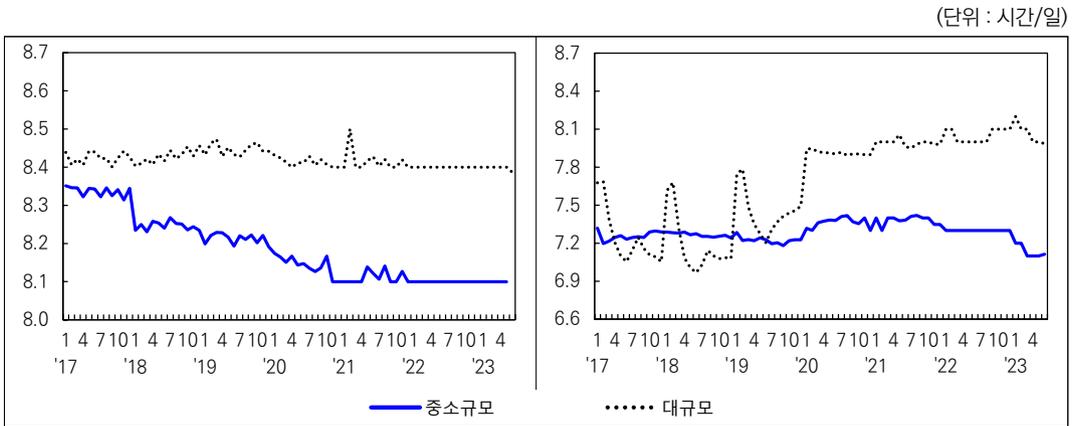
◆ 2023년 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59.3 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6시간 증가(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1일 증가)

○ 2023년 6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7.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6시간 증가,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89.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0.4시간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 근로일수가 전년동월대비 1일 증가한 영향 등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함.
-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건설업 근로시간 감소와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 2023년 6월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중소기업은 158.4시간으로 전년 동월대비 2.2시간 증가, 대규모 사업체는 163.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1시간 증가함.
- 중소기업 사업체의 근로시간이 대규모 사업체보다 적게 증가한 것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시간 감소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21	2022	2022		2023	
				1~6월	6월	1~6월	6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3(0.1)	158.3(-1.2)	156.3(-1.9)	156.2(-7.2)	156.1(-0.1)	158.4(1.4)
	상용 총근로시간	167.8(0.1)	165.9(-1.1)	163.4(-1.9)	163.2(-7.6)	164.6(0.7)	167.7(2.8)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0.1(0.2)	158.2(-1.2)	155.7(-2.0)	155.3(-8.1)	157.4(1.1)	160.1(3.1)
	상용 초과근로시간	7.7(-1.3)	7.7(0.0)	7.7(0.0)	8.0(5.3)	7.2(-6.5)	7.6(-5.0)
	임시일용 근로시간	97.4(1.4)	96.4(-1.0)	96.2(-0.5)	98.5(-2.0)	88.2(-8.3)	87.6(-11.1)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2.3(-0.3)	160.4(-1.2)	158.1(-2.6)	158.8(-7.5)	161.1(1.9)	163.9(3.2)
	상용 총근로시간	163.4(-0.3)	161.7(-1.0)	159.3(-2.6)	160.0(-7.5)	162.7(2.1)	165.6(3.5)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2.3(-0.5)	150.6(-1.1)	148.2(-2.8)	148.5(-8.3)	151.6(2.3)	153.8(3.6)
	상용 초과근로시간	11.1(1.8)	11.0(-0.9)	11.1(0.9)	11.5(3.6)	11.1(0.0)	11.8(2.6)
	임시일용 근로시간	127.9(2.2)	125.0(-2.3)	123.3(-3.2)	123.1(-4.4)	117.4(-4.8)	118.4(-3.8)

주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6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광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23년 6월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4.2%), 정보통신업(4.1%)인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4.1%), 건설업(-3.9%), 광업(-2.1%)은 근로시간이 감소함. 숙박 및 음식점업의 근로시간 감소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임시일용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14.8%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1	2022	2022		2023	
			1~6월	6월	1~6월	6월
전 산업	160.7(0.1)	158.7(-1.2)	156.6(-2.0)	156.7(-7.2)	156.9(0.2)	159.3(1.7)
광업	179.9(-0.7)	174.8(-2.8)	173.1(-4.3)	174.2(-7.6)	168.6(-2.6)	170.5(-2.1)
제조업	173.5(0.5)	171.1(-1.4)	169.3(-2.4)	169.9(-7.6)	171.7(1.4)	175.1(3.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1.6(-1.3)	158.6(-1.9)	156.8(-3.0)	161.3(-3.0)	160.4(2.3)	165.0(2.3)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6.9(0.2)	174.4(-1.4)	173.1(-1.4)	172.1(-6.2)	170.3(-1.6)	174.1(1.2)
건설업	135.9(-0.7)	134.3(-1.2)	133.2(-1.4)	135.0(-5.0)	129.3(-2.9)	129.8(-3.9)
도매 및 소매업	163.8(0.0)	162.3(-0.9)	160.1(-1.7)	159.5(-7.2)	160.0(-0.1)	162.1(1.6)
운수 및 창고업	160.2(0.8)	160.6(0.2)	157.9(-0.5)	158.3(-5.4)	160.5(1.6)	163.6(3.3)
숙박 및 음식점업	148.4(-0.9)	146.5(-1.3)	144.3(-1.1)	146.5(-3.7)	138.8(-3.8)	140.5(-4.1)
정보통신업	164.1(0.2)	162.7(-0.9)	160.1(-1.8)	159.2(-8.3)	162.5(1.5)	165.8(4.1)
금융 및 보험업	161.9(-0.1)	159.8(-1.3)	157.0(-2.8)	156.6(-8.7)	160.7(2.4)	162.7(3.9)
부동산업	171.8(-0.8)	169.4(-1.4)	166.8(-2.3)	166.5(-6.3)	167.7(0.5)	169.7(1.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1.6(-0.1)	160.3(-0.8)	157.8(-2.0)	157.4(-8.3)	159.5(1.1)	161.8(2.8)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2.1(0.2)	159.8(-1.4)	157.8(-2.1)	157.0(-7.6)	158.4(0.4)	160.7(2.4)
교육서비스업	137.2(0.4)	136.1(-0.8)	133.4(-1.8)	133.5(-7.9)	136.4(2.2)	138.4(3.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8.3(-0.2)	155.3(-1.9)	153.0(-2.4)	152.5(-8.2)	151.1(-1.2)	154.1(1.0)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2.7(2.0)	150.8(-1.2)	148.8(-1.1)	149.4(-7.7)	149.2(0.3)	150.9(1.0)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2.4(1.3)	160.3(-1.3)	158.2(-1.7)	156.5(-7.8)	160.7(1.6)	163.0(4.2)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6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제조업(175.1시간)이고, 다음으로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74.1시간), 광업(170.5시간), 부동산업(169.7시간) 순임. 반면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29.8시간)으로 나타남.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3년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24건
 - － 8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24건)와 같은 수치임.
- 2023년 8월 조정성립률은 22.7%
 - － 8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22.7%보다 19.4%p 낮은 수치임.

〈표 1〉 2022년, 2023년 8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3. 8	24	22	5	4	1	17	4	13	0	0	9	22.7%
2022. 8	24	25	8	4	4	11	2	9	0	6	6	42.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중재사건

- 2023년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2건
 - － 8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3건)보다 1건 적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1건임.

〈표 2〉 2021년, 2023년 8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3. 8	2	1	0	1	0	4
2022. 8	3	0	0	0	0	6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3년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210건
 - 8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49건)보다 61건 많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9.1%(57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0.9%(139건)를 차지함.

〈표 3〉 2022년, 2023년 8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3. 8	210	196	50	7	101	3	23	12	566
2022. 8	149	152	38	4	78	4	18	10	52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3년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6건
 - 8월 복수노조사건¹⁾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7건)보다 1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50.0%(3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50.0%(3건)를 차지함.

〈표 4〉 2021년, 2023년 8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3. 8	6	6	3	0	1	1	1	0	9
2022. 8	7	9	2	0	-1	-1	9	0	9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지난해 아동학대 수사 → 직위해제 교사 35명

- 8월 13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울산은 서류 문제로 제외)에서 제공받은 '지난해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사례'에 따르면, 아동학대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직위해제된 사례는 수사 개시 대상의 7.8%라고 밝혔음.
- 교육공무원이 아동학대 수사를 받은 사례는 448건, 이로 인해 직위해제된 사례는 35건으로 집계됐음.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는 아동학대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교육공무원에 대해 임명권자가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교육감과 교육장의 판단에 맡긴 만큼, '아동학대 신고=직위해제'라는 현장 우려와 달리 실제 직위해제된 사례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가 있었으나 직위해제는 0건이었음.

◆ 교사 10명 중 4명 '심한 우울 증상'

- 9월 5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녹색병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직무 관련 마음(정신) 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조사에 응한 초등·중등교사 3,505명의 답변을 분석했음.
- 학교 내 폭력을 경험했다는 답변 비율은 66.3%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신체 위협 및 폭력 경험 18.8%, 성희롱 및 폭력 경험 18.7%, 원치 않는 성적 관심도는 12.9%로 나타났음.
- 언어적 폭력 가해자가 누구인지 물었더니(중복응답) 학부모가 63.1%, 학생은 54.9%로 조사됐음.
- 신체 폭력 가해자의 96.5%는 학생, 21.7%는 학부모였음.
- 우울 증상을 파악했더니 응답자의 38.3%가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
- 응답자의 16%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고, 응답자의 4.5%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고 밝혔음.

◆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2명 중 1명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 8월 15일 경기도는,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모니터링단이 실태조사한 결과 2021년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3%, 2022년에는 49.9%로,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음.

- 경기도는 “3~6개월 단기계약은 부당한 대우나 업무지시, 갑질에도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 경기도는 올해도 31개 시·군 단기계약 실태를 조사하였음. 1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임.
- 경기도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어 최소한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교육, 노동권익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CJ대한통운 사무직 복수노조 설립

- 8월 29일 ‘CJ대한통운 즐거운직장만들기 노조’(위원장 곽태혁)는 “지난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접수했고 21일 설립신고증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 기존에 사무직·기능직 등 정규직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산하 CJ대한통운노조(1노조)와 특수고용직 택배기사가 가입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에 이어 사무직 중심 복수노조가 설립된 것임.
- 사무직 중심의 복수노조가 설립된 데에는 저성과자에 대한 PIP(Productivity Improvement Program) 제도 도입에 따른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기존 노조에 M·D 직급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었던 점도 복수노조 설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사무직은 A-S-M-D(Associate-Specialist-Manager-Director) 직급으로 나뉘는데, 1노조에는 S직급까지만 가입이 가능해 M·D 직급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음.

◆ ‘2022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 9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22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웹소설 산업은 성장세로 산업 규모는 약 1조 390억 원임. 2020년 6,400억 원 대비 3,990억 원(62%) 증가했음. 웹소설 이용자는 587만 명가량으로 파악됐음.
- 반면 웹소설 작가들은 2021년 한 해 평균 수입이 3,487만 원인데, 이 중 웹소설 연재로 얻은 수입은 46.1%로 절반에도 못 미쳤음.
- 원고료 자체가 낮은 것이 원인으로 보임. 한 작품당 평균 원고료 수준은 10만~100만 원이 27.8%로 가장 많았음.
- 원고료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72.6%)인데, 작품 완성 기간과 창작 비용을 고려

- 하면 턱없이 낮은 소득임.
- 불공정 계약은 낮은 원고료의 원인으로 지목됨. 플랫폼·에이전시 등과 계약 시 '계약조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응답이 52%였음.
 - 그 이유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수용했다'가 30.8%,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이 어렵다'가 24.3%로 의지와 무관하게 수용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음.
 - 절반 이상(55%)이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다고 답했음. '2차적 저작권, 해외 판권 등 제작사에게 유리한 일방적 계약'이 34.4%로 가장 많았음.
 - 2차적 저작물 계약을 한 응답자가 74.8%를 차지했지만 2차적 저작물 수입이 평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그쳤음.
 - 이외에도 창작자들이 겪은 불공정 유형은 △계약 전 계약내용 수정요청 거부(33.4%) △매출이나 정산내역 불성실 제공(32.6%) △적정한 수익 미배분 및 제한·지연(30.6%)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22.6% 등이었음.

◆ 현대중공업 2차 잠정합의안 가결

- 9월 7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임금교섭 2차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하였음.
- 지부는 7일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6,381명 중 5,895명(92.4%)이 투표해 3,450명(58.5%)이 찬성했고, 2,426명(41.5%)이 반대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노사는 9월 5일 기본급 12만 7천 원(호봉승급분 3만 5천 원 포함) 인상과 오일뱅크 상품권 50만 원을 포함한 격려금 450만 원에 잠정합의했음.
- 부결된 1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12만 원(호봉승급분 3만 5천 원 포함) 인상과 오일뱅크 상품권 50만 원을 포함한 격려금 3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음.
- 이번 임협 타결은 노사가 지난 5월 16일 상견례를 한 뒤 3개월여 만임.

◆ 전남도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70% 휴게실 개선 필요

- 8월 17일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전남지역 대학 내 취약직종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간담회'를 열었음.
- 센터는 전남도 소재 13개 국공립·사립대 청소원·환경미화원·건물경비원과 같은 취약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1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음.
- 응답자의 94.8%가 사업장 내 휴게실이 있다고 응답했음. 하지만 10명 중 7명(69.8%)은 개

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음.

- 구체적으로는 “샤워실·세면대·세면도구 등 샤워시설 설치를 원한다”, “여름 에어컨 설치 및 가동”, “도배·장판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달라”, “창문 앞에 주차장이 있어 매연이 심함” 같은 응답이 나왔음.
- 고용형태나 노조 유무에 따라 휴게시설 위치도 차이가 났음. 정규직은 93.6%가 휴게시설이 ‘건물 내 지상’에 위치한다고 응답했지만, 간접고용 노동자는 80% 수준이었음.
- 간접고용 노동자 5명 중 1명은 휴게시설이 건물 내 지하(14.5%)나 건물 내 옥상(5.5%)에 위치했음. 노조가 있는 노동자는 94.3%가 휴게시설이 건물 내 지상에 있다고 응답했는데, 노조가 없는 노동자는 86.3%에 그쳤음.

◆ 방송사 비정규직 10명 중 7명 “괴롭힘 당했다”

- 9월 1일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은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방송 비정규 노동자 4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밝혔음.
- 응답자 10명 중 7명(73.2%)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음.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54.9%로 가장 많았고, 사적 용무 지시나 퇴사 강요 같은 ‘부당지시’가 43.1%, ‘따돌림·차별’이 39.9%로 뒤를 이었음.
- 괴롭힘을 겪어도 진료나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음.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의료적 진료·상담 여부에 대해 물어 보니 43.5%가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답했음.
- 10명 중 4명(42%)은 ‘지난 1년간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음. 이들 중 ‘있지만 드물다’고 답한 경우가 26.8%였고, ‘여러 차례 있다’거나 ‘많다’고 답한 경우가 15.2%였음.
-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조차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자 3명 중 1명 이상(36.7%)은 ‘근로계약서를 작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답했음.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교부받지는 않았다’고 답한 경우도 6.3%였음. 급여명세서 또한 ‘교부받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8명(81%)인 것으로 조사됐음.
- ‘대부분 근무시간은 불규칙적이었고 밤샘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았음. 응답자 10명 중 7명(70.1%)이 ‘규칙적이지 않다’고 답했고 이들 중 ‘전혀 규칙적이지 않다’고 답한 경우가 36.5%였음. 월평균 밤샘 횟수를 조사했을 때 ‘없다’고 답한 경우는 29.1%에 불과했음. ‘9회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도 11.5%나 됐음.
- 밤샘 노동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당연시하는 업계 분위기’가 56.5%로 가장 많았고, ‘빠듯한 제작일정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이 52.7%로 비슷한 수준이었

- 음. '제작비 부족으로 인한 인력 부족'(36.8%),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31.5%)가 뒤를 이었음.
- 근무시간의 결정 주체는 응답자 절반 이상(54.4%)이 '방송사 또는 외주제작사'라고 답했음.

◆ 같은 시간 일해도 여성노동자 임금 남성의 '70%'

- 9월 6일 여성가족부는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를 발표했다.
- 지난해 여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 8,113원으로 남성(2만 5,866원)의 70.0% 수준이었음.
-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268만 3천 원으로, 남성(413만 7천 원)의 65.0% 수준으로 조사됐음.
- 노동시간이 남성보다 적어서 시간당 임금 격차(70.0%)보다 격차가 더 컸음.
- 지난해 여성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46.7시간, 남성은 160.8시간이었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여성이 74.5%, 남성이 72.5%였음.
-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여성(1만 9,594원)이 남성(2만 7,466원)과 비교해 71.3%로 조사됐음.
- 정규직-비정규직 간 여성의 임금 격차가 남성보다 적은 이유는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됨. 지난해 여성노동자 중 정규직은 54.0%, 비정규직은 46.0%였음. 남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각각 69.4%, 30.6%였음.

◆ 여성노동자 2명 중 1명 '아가씨·아줌마' 호칭 들어

- 9월 10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8월 2~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젠더폭력 특별 설문조사'한 결과를 10일 공개했음.
- 직장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성차별 경험비율이 3~4배 이상 높았음. "여자는 이래서 안돼" 같은 성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혐오표현을 경험한 여성(45.1%)이 남성(14.2%)의 3.2배였음.
- 여성노동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집·채용 차별(24.4%)과 노동조건 차별(25.1%)을 경험했다고 답했음.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는 남성노동자 응답(각각 7.6%)의 3.3배로 나타났음.
- 교육·배치·승진 차별은 여성(22.8%)이 남성(6.2%)의 3.6배, 정년·퇴직·해고 불이익은 여성(18.2%)이 남성(3.9%)의 4.7배였음. 여성의 11.5%는 임신·출산·육아휴직 후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했음. 남성은 3%였음.

- 비정규직 여성은 노동조건 차별(30.2%), 모집·채용 차별(29.3%), 교육·배치·승진 차별(25%), 정년·퇴직·해고 불이익(24.6%), 임신·출산·육아휴직 불이익(12.1%)이 심각했음.
- '직장생활을 하면서 특정 성별을 지칭하는 부적절한 호칭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31.3%가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음.
- 여성은 2명 중 1명(55.9%)이, 비정규직 여성은 10명 중 6명(60.3%)이 '아가씨·아줌마' 같은 부적절한 호칭을 들어봤다고 답했음. 또 혐오 발언을 듣거나 성역할 수행을 강요받았다는 응답은 여성(45.1%, 44.8%)이 남성(14.2%, 12.2%)의 각각 3.18배, 3.68배로 나타났음.
- 직장인 19.3%는 '연애·결혼·출산 질문' 같은 사생활 간섭을 경험했다고 답했음. 남성(13.5%)보다 여성(26.9%), 정규직(16.5%)보다 비정규직(23.5%)이 더 높았음.
- 여성의 외모 지적 경험(28.7%)은 남성(10.1%)의 2.8배였고, 비정규직 여성(31.5%)은 정규직 남성(9.6%)의 3.3배였음. 여성노동자 11%는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했음. 남성(3.4%)의 3배 이상임. 비정규직 여성은 14.7%로 정규직 남성(2.5%)의 5.8배였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